

제 공 일 자	2008. 11. 12(수)	담 당 자	이진면 동향분석실장 이태열 연구조정실장	
홍보담당	김진억 선임(368-4413)	연락처	368-4229, 4411	총7매

제 목 : 보험산업 성장 03년 카드위기 이후 최저수준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13일 오전 7시30분부터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조찬회의 발표에 따르면 FY08 보험산업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보험료 성장률은 FY03년 카드위기시의 3.0% 이후 최저치인 3.8%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FY09에 다소 회복되어도 5.8%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료침투도(보험료/경상GDP)는 FY07 12.1%에서 FY08 11.7%로 하락하고 FY09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금융위기의 글로벌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경제도 2008년 4.1%에서 2009년 3.1%로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원/달러환율, 금리 등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2009년 상반기까지 변동성이 심할 것이나 이후 점차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의 영향으로 일시납 변액 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사망보험의 만성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FY08에 사실상 0%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망되었다. FY09에는 변액보험이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성장세를 일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망보험의 침체 지속으로 성장률은 4.8%에 그쳐 FY07 13.0%의 1/3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요율인하압력과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저하로 FY09 성장률이 1.8%까지 하락하는 정체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손해보험도 초회보험료의 성장 둔화에 따라 보험료 성장률이 FY07 19.5%에서 FY08에는 14.0% 그리고 FY09에는 10.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손해보험의 성장률도 FY08 10.2%에서 FY09에는 7.9%로 하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보험산업이 투자형 상품보다는 장기 보장성상품을 중심으로 최대한 성장을 보완하고, 해약률 관리를 통해 계속보험료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특별한 신성장 상품이 부재한 만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차별화된 사업모형의 개발에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 경제 진단과 전망

□ (실물 경제) 2009년 실물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둔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내수부진의 지속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 동향 : 2008년 실물 경제는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둔화, 건설투자의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1/4분기 5.8%, 2/4분기 4.8%, 3/4분기 3.9%로 크게 둔화

- 산업별로는 수출의 호조로 제조업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보험업은 2008년 1/4분기 6.3%에서 3/4분기 0.8%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건설업도 주택경기의 침체로 감속 성장의 부진을 면치 못함.

○ 전망 :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 둔화와 내수부진의 지속으로 성장률이 2008년 4.1%에서 2009년에는 3.1%로 둔화가 가속될 전망

- 올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상수지는 내년에 수출을 초월한 수입 둔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 축소 등으로 12억 달러의 흑자 반전이 예상된다.

□ (금융시장) 전 세계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화, 원화 모두에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은 당분간 유동성 부족의 완전한 해소는 어려울 것이나, 기준금리의 지속 인하, 달러화에 대한 세계 자금경색의 점진적 완화로 내년에는 금리와 원화환율이 점차 하향 안정될 전망

○ 동향 :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화에 대한 수요 급증함에 따라 원/달러환율이 폭등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영향으로 주가 폭락과 극심한 자금경색 현상이 초래되면서 달러화와 원화 모두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전년말 대비 금년 10월말 기준 38% 상승, 주가는 KOSPI 기준 41%하락, 회사채(3년 AA-)와 국고채(3년)간 스프레드가 작년 말 103bp에서 금년 10월에 366bp로 확대될 정도로 최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및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됨.

○ 전망 :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경제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해소로 2009년 연평균 4.1%(국고채 3년기준)로 금년보다 1.1%p 정도 낮아질 전망

- 금년 상반기 중 강세에서 하반기에 초약세로 급전환된 원/달러 환율은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경색의 점진적 완화,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2009년에는 연평균 1,106 원/달러, 4/4분기 평균 1,068 원/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물가는 경기둔화, 유가 및 원자재가 하락 등으로 올 4.7%에서 내년에는 3.0%로 안정될 전망

◆ 보험 산업 지표 전망

- (개관) FY08 이후 보험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된 후 2009년 하반기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FY09에 생명보험의 성장세가 일부 회복되고 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전년(3.8%)에 비해 다소 개선된 5.8%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 (생명보험) FY09 생명보험산업은 경기둔화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FY08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전망
 - 최근 생명보험 산업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고성장을 지속하던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요둔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초회보험료 위축이 일시납 부문에서 큰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월납 신규가입을 기반으로 한 계속보험료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FY09 성장률은 FY08 1.0%에 비해 소폭 회복된 4.8%를 나타낼 전망
 - 사망보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FY09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사망보험은 구조적 저성장 기조가 우려됨.
 - 초회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유지율 제고를 통한 계속보험료의 성장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FY09 사망보험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
 - 생존, 생사혼합보험은 그간 변액보험의 인기로 고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9년, 경기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성장률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 초회보험료는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2008 7~8월 전년동기 대비 60%이상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일시납 초회비중이 큰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성장률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FY08은 전년에 비해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FY09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성장을 통해 생존/생사혼합 보험 성장률은 소폭 회복될 전망
 - 단체보험은 2009년에도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가입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보험영업이익은 경쟁심화로 인해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투자영업이익 또한 악화될 전망
 - 또한 두자리 수 증가율을 유지하던 총자산 규모 성장률도 둔화될 전망
- (손해보험) FY05 이후 4년 연속 10%대 성장이 기대되나, FY09부터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한자리 수 성장률이 예상되고, 요율 인하 압력과 온라인 자보의 성장으로 자동차보험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나, 장기손해보험 위주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 : FY09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8%로 하락, 손해율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7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FY08 원수보험료는 최근 손해율 안정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 저렴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3.3% 성장이 예상되며, 상기 요인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FY09에는 1.8% 성장에 그칠 전망
 - FY08 손해율은 경기하강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고유가에 따른 사고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FY07에 비해 2.2%p 감소한 70.8%를 기록할 것이나, 최근 유가의 하향 안정화, 교통사범 특별사면에 따른 사고율 증가 등으로 FY09 손해율은 71.2%를 다소 상승할 전망
- 장기손해 : FY09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0.3%로 전년대비 다소 둔화될 것이며, 손해율은 80%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은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질병 및 상해보험이 고성장세를 보이면서 FY08에는 14.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나, FY09에는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로 국내경기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다소 둔화된 10.3% 성장에 그칠 전망
 - 손해율은 원수보험료의 높은 성장세와 더불어 경험위험률 전환 등 적극적 수익관리에 따른 노력으로 FY08 80.5%, FY09 80.1%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할 전망
- 일반손해 :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성장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 FY08 8.3%, FY09 8.0%의 성장이 기대됨
 - 화재보험은 요율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와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가입대상물건의 확대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FY08 -5.3%, FY09 -1.8%].
 - 해상보험은 FY08 초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선박건조량 증가로 인해 16.1%의 고성장을 보였으나, 올해 후반기부터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과 선박량 정체가 예상되므로 FY09에는 예년 수준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FY08 5.7%, FY09 2.6%].
 - 보증보험의 성장률은 제1금융권의 신용경색과 주택담보대출규제(LTV, DTI) 완화로 보증물량 자체는 늘어나나 불량물건 증대로 인한 심사 강화로 FY08 14.6%에서 FY09에 12.7%로 소폭 둔화될 전망
 - 특종보험은 건설 부문의 경기침체로 건설공사보험, 동산종합보험의 부진이 예상되나, 기업복지 차원의 단체상해보험 시장 확대, 배상책임 범위 확대,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 전가로 인한 기타특종보험의 고성장으로 8% 대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됨. [FY08 8.2%, FY09 8.4%]
-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손해율 개선으로 FY08부터 흑자가 기대되며, 투자영업이익은 자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침체 등으로 FY08에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FY09에는 총자산규모 확대에 회복이 예상됨.

2008년 보험산업 및 경제 주요 전망치

1. 보험산업 주요 지표

항 목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수입보험료(억원, 성장률)				
- 생명보험	664,549 (8.1%)	750,956 (13.0%)	758,728 (1.0%)	795,314 (4.8%)
- 손해보험	295,829 (15.0%)	339,818 (14.9%)	374,005 (10.2%)	403,705 (7.9%)
- 전 체	960,378 (10.1%)	1,090,774 (13.6%)	1,132,732 (3.8%)	1,199,020 (5.8%)
보험침투도(%)*				
- 생명보험	7.8	8.3	7.8	7.8
- 손해보험	3.5	3.8	3.9	3.9
- 전 체	11.3	12.1	11.7	11.7
1인당보험료(천 원)				
- 생명보험	1,376	1,550	1,561,	1,632
- 손해보험	613	701	769	828
- 전 체	1,989	2,231	2,330	2,460
생존보 구성비(%)				
- 생명보험	69.5	68.8	67.0	66.3
- 손해보험	30.5	31.2	33.0	33.7

주1) 보험침투도는 (총수입보험료/경상GDP×100)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치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 명 보 험	생 존	180,587	13.4	223,900	24.0	225,691	0.8	248,938	10.3
	사 망	294,199	5.6	306,813	4.3	309,207	0.8	309,673	0.2
	생 사	124,213	13.2	148,345	19.4	154,279	4.0	166,930	8.2
	소 계	598,999	9.4	679,058	13.4	689,178	1.5	725,541	5.3
	단 체	65,550	-2.5	71,898	9.7	69,550	-3.3	69,773	0.3
	합 계	664,549	14.4	750,956	13.0	758,728	1.0	795,314	4.8
손 해 보 험	화 재	3,132	-3.4	3,075	-1.8	2,912	-5.3	2,860	-1.8
	해 상	6,323	19.9	6,518	3.1	6,890	5.7	7,069	2.6
	자동차	96,492	9.8	108,095	12.0	111,662	3.3	113,672	1.8
	보 증	11,428	13.5	9,940	-13.0	11,391	14.6	12,838	12.7
	특 종	25,810	9.8	28,371	9.9	30,697	8.2	33,276	8.4
	장 기	136,802	21.5	163,436	19.5	186,316	14.0	205,506	10.3
	개 인	7,975	14.3	9,995	25.3	12,384	23.9	15,480	25.0
	퇴 직	7,868	2.1	10,390	32.1	11,753	13.1	13,005	10.7
	합 계	295,829	10.8	339,818	14.9	374,005	10.1	403,705	7.9

주 :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3.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 %)

경제지표	CY2006	CY2007	CY2008(E)	CY2009(F)
실질GDP	5.1	5.0	4.1	3.1
(경상GDP)	4.6	6.3	7.5	6.0
민간소비	4.5	4.5	1.7	1.6
설비투자	7.8	7.6	2.3	2.1
건설투자	-0.1	1.2	-0.9	1.4
총수출	11.8	12.1	10.4	6.3
(재화수출)	(12.4)	(12.0)	(10.2)	(6.3)
총수입	11.3	11.9	8.2	5.9
(재화수입)	(11.2)	(10.9)	(9.6)	(6.8)
경상수지(US\$억)	54	60	-100	12
상품수지(US\$억)	279	294	78	89
(상품수출)	(14.8)	(14.2)	(20.8)	(4.3)
(상품수입)	(18.6)	(15.0)	(28.7)	(4.1)
소비자물가(연평균)	2.3	2.5	4.7	3.0
국고채(3년)(연평균)	4.8	5.2	5.2	4.1
원/달러(연평균)	955	929	1,066	1,106
(4/4분기 평균)	(Q4: 938)	(Q4: 921)	(Q4: 1,229)	(Q4: 1,068)